

華嚴書院 山仰會報



하서선생묘 장성군 황룡면 맥동 원당산

삼양그룹은 식품만이 아닙니다
화학부터 의약까지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모든 것에 삼양그룹이 있습니다

세상을 편리하게 바꾸는 첨단화학소재부터 69억 세계인이 꿈꾸는 항암제까지-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삼양그룹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첨단소재를 발견하신다면 확인해보십시오. 아마 삼양그룹이 만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풍요로운 생활의 시작 **samyang**

하서 김인후선생의 光州 庠歌謠 광주향교 가요

김 장 수 (본회 감사·동양문헌학회 이사)

철상순강한 哲相巡江漢。
어진 재상 사방으로 벼슬길 가니
남인양절모 南人仰節旒。
남쪽 사람들 깃발 우러러 보네.
강신유악준 降神惟嶽峻。
드높은 산악이 신명을 내리어
정세시인호 挺世是人豪。
세상에 빼어난 호걸 나섰네.
江漢: 사방을말함 / 挺: 빼어남

익분운봉원 翼奮雲鵬遠。
대붕새는 날개 멀리 떨치고
지번월계고 枝攀月桂高。
대과급제하여 높은 가지 더위 잡았네.
천문등채기 天門騰彩氣。
하늘 높이 서기가 날아오르니
조저득영모 朝著得英髦。
조정에선 영재를 얻었습니다.
月桂: 대과장원하여 월계수를 꽃음을 뜻함.

기야공양마 冀野空良馬。
기주 들판 좋은 말 없어도
영주압거오 瀛洲壓巨鰲。
옥당에선 큰 자라가 압도하였네.

덕용산온옥 德容山韞玉。
덕의 자태는 산처럼 옥을 감추고
화조해변도 華藻海翻濤。
빛나는 문장 바다 이루어 물결치네.
瀛洲: 신선이사는 곳. 여기서는 학문이 우수하여 옥당에서
사가독서함에 비유.

숙목선군언 肅穆先羣彦。
숙목을 군언에게 먼저 내세워
청요기독로 清要幾獨勞。
청요직에 매우 수고한 적 몇 번이던가?
은대전봉조 銀臺傳鳳詔。
은대에서 봉조를 전달하였고
금궐시용포 金闕侍龍袍。
금궐에서 용포를 모시었네.
肅穆: 화목을 뜻함
清要: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 등 특히 청렴이 요구되는 부서
銀臺: 승정원 鳳詔: 임금의 조칙

섬속준공석 陝俗遵公奭。
섬땅의 풍속은 소공을 따르고
성인화자고 成人化子臯。
성땅 사람은 자고에게 감화되었네.
생평지대학 生平志大學。

평소에 늘 대학을 뜻하였고

중세영이소 中歲詠離騷。

중년에야 이소를 노래하였네.

섬땅: 주나라에서 주공과 소공이 다스린 지역. 호남을 비유함

도익임위저 道益臨危著。

도는 더욱 위태할 때 드러나고

심증려환조 心增慮患操。

마음은 걱정으로 인해 굳게 지켰네.

홍은종대패 洪恩終大霈。

넓은 은혜 마침내 크게 내려서

준걸갱중조 俊傑更重遭。

준걸들 다시 중용하였네.

霈 성할 때

방악승전기 方嶽承專寄。

감사로 온 책임 오롯이 하더니

궁촌절영호 窮村絕永號。

궁촌에 부르짖는 소리 끊겼네.

강재존일본 綱提存一本。

벼리 이끄는 데 한결 같은 근본을 두고

목거진섬호 目舉盡纖毫。

세세한 구석까지 모두 살폈네.

方嶽: 방백을 말함 / 綱提: 삼강오륜을 지켜나감

검약회투속 儉約回偷俗。

검약으로 거친 풍속 돌려놓으니

주구겁노도 誅求怯老饕。

탐욕스런 무리들 벌 받을까 두려워하네.

지형물자정 持衡物自正。

공평한 것 견지하니 사물이 절로 바르고

현경영난도 懸鏡影難逃。

거울 높이 비추니 그림자도 도망 못해라.

饕 탐할 도

항시흥문화 況是興文化。

더구나 문화를 흥기시켜

선어봉액조 先於縫掖曹。

유복 입은 무리에게 먼저 베풀네.

근심간식실 根深看食實。

뿌리 깊으니 튼실한 열매 따는 걸 보고

광윤견첨고 光潤見添膏。

기름을 더하니 빛이 더욱 반질하네.

縫掖: 유복을 말함

준령유가보 峻嶺猶加步。

높은 고개 오히려 걸음 내딛고

위탄차진고 危灘且進篙。

위태로운 여울에도 배 저어가네.

요정지공맹 遙程指孔孟。

멀리 공맹의 길을 가르침 삼고

성업망이구 盛業望伊咎。

훌륭한 학문은 이윤과 고요를 기약하네.

篙 탐할 도 삼앗대 고 짚 이름 구(고요)

해설

하서 선생 전집 권지십(河西先生全集卷之十)의 오언배율(五言排律)에 실려 있다.

조선시대 가요란 주로 송축하는 의미의 노래로 임금과 왕비의 거동이나 감사나 칙사의 영접 등에서 영접 나온 다중이 환영하는 노래다. 환영하는 곳에 채봉(采棚: 요즘의 아취문 비슷한 것)을 설치하고 결채(結綵: 요즘 오색 테이프 두르듯 문이나 다리 등에 걸어둠) 하고서 목적지에 이르면 가요를 노래했으니 왕조실록에도 종종 기록되어 있다.

‘광주 상가요’는 면양정 송순 선생께서 중종 37

년 1542. 5월 ~ 1543. 3월의 정부 참찬에서 전라 감사로 전보 재임 중에 광주향교에 순시하실 때 불렀던 노래로 추정된다.

면양정 송순(宋純) 선생은 1493년(성종 24)~1582년(선조 15). 조선 중기의 문신 면양정가단(倅仰亭歌壇)의 창설자이며 강호가도(江湖歌道)의 선구자이니. 본관은 신평(新平)이오 자는 수초(遂初) 또는 성지(誠之), 호는 기촌(企村) 또는 면양정(倅仰亭)이다. 전라도 담양 상덕리 출신으로 증이조판서 송태(宋泰)의 아들이다.

1519년(중종 14)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 승문원권지부정자를 시작으로 1520년 사가독서(賜暇讀書)를 마친 뒤 1524년 세자시강원설서(世子侍講院說書)가 되고 1527년 사간원정언이 되었다. 1533년 김안로(金安老)가 권세를 잡자, 귀향하여 면양정을 짓고 시를 읊으며 지냈다. 이를 계기로 신비 복위상소와 기묘사화 등에 관련된 놀재충암 석헌 학포송재 등 호남 선현들이 면양정에 출입하여 시 짓기를 즐겼으니 호남 의리 정신이 시문 활동을 통하여 더욱 발전된 시기라 할 수 있다.

1537년 김안로가 사사된 뒤 5일 만에 홍문관부응교에 제수되고, 다시 사헌부 집의에 올랐다. 이어 홍문관 부제학, 충청도어사등을 지냈고, 1539년 승정원 우부승지에 올라 4월 명나라의 요동도사(遼東都司)가 오자 선위사가 되어 서행(西行)하였다.

그뒤 경상도 관찰사·사간원 대사간 등의 요직을 거쳐 50세 되던 해인 1542년 나이 50세에 윤원형(尹元衡)과 황헌(黃憲) 등에 의하여 전라도관찰사로 피출(被黜)되었다.

1547년(명종 2)에는 동지중추부사가 되어 《중종실록》을 찬수하였다. 그해 5월에 주문사로 북경에 다녀와 개성부유수가 되었다.

1550년 대사헌·이조참판이 되었으나, 진복창

(陳福昌)과 이기(李芑) 등에 의하여 사론(邪論)을 편다는 죄목으로 충청도 서천으로 귀양 갔다.

이듬해에 풀려나 1552년 선산도호부사가 되고, 이해에 면양정을 증축하였다.

이때 고봉 기대승(奇大升)이 〈면양정가〉를 쓰고 백호 임제(林悌)가 부를, 하서 김인후(金麟厚), 석천 임억령(林億齡), 사암 박순(朴淳), 제봉 고경명(高敬命) 등이 시를 지었다. 이후 전주부윤과 나주 목사를 거쳐 70세에 기로소에 들고, 1568년(선조 1)한성부좌윤이 되어 《명종실록》을 찬수하였다.

이듬해 한성판윤으로 특승하고, 이어 의정부 우참찬이 된 뒤, 벼슬을 사양하여 관직 생활 50년 만에 은퇴하였다.

면양정 송순은 일찍이 박상(朴祥)과 송세립(宋世琳)을 사사하였고, 교우로는 신광한(申光漢)·성수침(成守琛)·나세찬(羅世縝)·이황(李滉)·박우(朴祐)·정만중(鄭萬鍾)·송세형(宋世珩)·홍섬(洪暹)·임억령 등이 있다. 문하 인사로는 김인후·임형수(林亨秀)·노진(盧禎)·박순·기대승·고경명·정철(鄭澈)·임제 등이 있다.

성격이 너그럽고 후하였으며, 특히 음물에 밝아 가야금을 잘 탔고, 풍류를 아는 호기로운 재상으로 알려졌다.

광주는 조선 성종 19년 1488년 사회기강의 해이로 광산현으로 강등되어 부임한 권수평 현감이 사재를 출연하여 광주향교를 중수하고 문교와 향약을 적극 장려하여 불과 10여년에 다시 목사 고을로 승격하였고 문풍이 한창 융성할 때 면양정 송선생이 감사로 부임하여 환영하는 노래를 하서 선생께서 작사하신 것이다.

멀리 공맹의 길을 가르침 삼고 훌륭한 학문은 이윤과 고요를 기약하자고 하였으니 향교에서 수학하던 유학(幼學)들의 각오도 대단하였다 하겠다.

河西, 비를 읊다

우중즉사

한번 비가 나무 위 꽃을 새로 재촉하니
봄빛은 차근차근 변화로 치닫누나
새 우짖고 닭 울어라 버들가지 한들한들
산 안개 연기 섞여 만여 집에 넘실대네.

雨中卽事

一雨新催樹上花, 春光次第向繁華.
鷄鳴鳥喚柳條弱, 山靄和煙漲萬家.

양재우중

아침저녁 연달아 산 비 내리니
타향이라 나그네 갖가지 시름.
해당화꽃은 하 붉어 황홀도 한데
뜨락 풀은 푸르려 나풀거리네.
수풀 사이 새들은 말문 막히고
성 밖의 비둘기는 목청 다듬네.
낮꿈을 깨고 나니 어찌 건디리
탑자리에 홀로 앉아 주저하는¹⁾ 꼴.

1) 「夷猶」: 夷由와 같은 말인데 遲疑하여 선뜻 결정 못하는 것을 이룸. 《楚辭》九歌에 「君不行兮夷猶」라는 글귀가 있음.

良才雨中

山雨連朝暮, 他鄉客政愁.
海棠紅欲亂, 階草綠方柔.
啾啾林間鳥, 啾啾郭外鳩.
何堪午夢罷, 旅榻獨夷猶.

기이

고향 땅엔 봄이 정히 저물었는데
역마길엔 하마 벌써 초여름일레.
베개 위엔 삼경(三更)의 꿈이라면은
보파리엔 한 권의 책뿐이로세.
하늘 길어 나는 새는 꺼져버리고
가람 넓어 닫는 고긴 희미하여라.
비 잦은 황매(黃梅) 시절 강구름 북쪽
서울 먼지 흰옷을 물들이누나.

其二

鄉關春政暮, 驛路夏方初.
旅枕三更夢, 行裝一卷書.
空長減征鳥, 水闊迷歸魚.
梅雨江雲北, 京塵化素裾.

고우탄

한 비가 밤새도록 극성을 부려
바람마저 겹쳐라 빨다 삼켰다.
가로 붙어 기왓골을 대지른다면
고루 세어 서까래 뿌릴 쏘아대누나.
허둥지둥 책상을 들어옮기고
소리 외쳐 물둥이를 갖다 놓았네.
여기저기 가릴세라 모두 젖으니
우뚝 앉아 아침 해나 기다릴 밖에.

苦雨嘆

一雨終宵苦, 風威借吐吞.
橫吹衝瓦隙, 散漏射椽根.
顛倒移書案, 驚呼列水盆.
床床沾濕盡, 兀坐待朝暉.

우중

남루(南樓)라 늦으니까 비가 뿌리니
구름 빛이 예전과 다르군 그래.
정원 술은 이슬 맺혀 잎이 환하고
골짜기 버들 바람 띄어 가지 쓸려라.
논바닥의 마른 벼는 춤을 추는데
언덕 머리 시든 풀은 윤기를 띠네.
이제부턴 모두가 즐길 만하니
한번의 덕택 역시 은사(恩私)로구려.

雨中

雨灑南樓晚, 雲光異昔時.
庭松明露葉, 谷柳亞風枝.
隴上苗興槁, 原頭草被滋.
從今汔可樂, 一澤亦恩私.

희우

봄 내내 말라말라 못에도 먼지 이니
들녘의 벼농사가 모두 타서 한이로세.
상림(桑林)의 육사(六事) 자책 상제님이 감격
하고
운한(雲漢)이라 팔장(八章)은 하마 신(神)을
통했구려.
몽게몽게 갑자기 오늘 아침 비 내리니
다 함께 우줄우줄 나라 백성 즐기누나.
하늘같은 성은(聖恩)을 비로소 깨달으니
상림(商霖)처럼 조화 바꾸는 좋은 경륜일레.

喜雨

三春枯土水揚塵, 農事西疇恨未因.
六事桑林初格帝, 八章雲漢已通神.
濛濛忽作今朝雨, 皞皞同歡一國民.
始覺聖恩天共大, 商霖調變好經綸.

우중

동남쪽 몽게 구름 산 하나를 이뤘는데
창가의 가을비는 들리나니 물소릴세.
담장 머리 국화꽃엔 이슬이 무거운데
술을 따라 마시면서 문을 닫고 홀로 있네.

雨中

雲漲東南作一山, 半窓秋雨響潺潺.
牆頭露重黃華菊, 自酌青樽獨掩關.

河西 金麟厚 선생 春享祭典에 부쳐

崔相玉 (勿染會長, 본회 고문)

河西 김인후 선생은 조선 仁宗 때의 명신으로 자는 厚之 호는 河西 또는 담재(湛齋)이며 시호는 文正으로 본관은 蔚山이다.

1510년 장성군 황룡면 맥동에서 참봉 령(齡)의 아들로 태어났다. 선생은 호남 성리학의 선구자로서 5살 때 이미 한시를 지어 주위 사람들을 크게 감동시킬 정도로 어려서부터 글재주가 뛰어났다.

선생은 전라감사로 부임한 정암 조광조(靜庵 趙光祖)의 삼촌 조원기(趙元紀)로부터 신동이 라는 소리를 들었고 8세 때는 고봉 기대승(高峰 奇大升)의 삼촌 복재 기준(服齋 奇遵)을 만나 붓을 선물 받기도 하였다. 10세 때 전라감사 모재 김안국(慕齋 金安國)에게 소학을 배웠고 놀재 박상(訥齋 朴祥), 신재 최산두(新齋 崔山斗) 그리고 면양 송순(旼仰 宋純)에게도 글을 배웠다.

선생은 소쇄원의 주인이고 조광조의 문인인 소쇄원 양산보(瀟灑園 梁山甫)와도 친구이자 사돈 간이다. 선생은 이곳을 자주 출입 소쇄원 48명의 주옥같은 시문을 남기어 호남 시가 문학의 일가를 이룬다.

1531년 성균관에 입학한 선생은 퇴계 이황(退溪 李滉)과 교분이 두터웠고 중종(中宗) 35년(1540)에 별시문과(別試文科)에 급제하여 승문원 부정자로 호당에 뽑혀 송재 나세찬(松齋 羅世縝)을 비롯 퇴계 이황(退溪 李滉), 금호 임형수(錦湖 林亨秀), 미암 윤희춘(眉巖 柳希春)등 20여명과 사가독서(유능한 文臣들을 선발하여 독서당에서 공부시키는 곳)의 영광을 누렸다. 호당(湖堂) 인물 중에 특히 湖堂 13인 수계(修稷)를 맺고 사류(士類)의 정분을 더욱 두텁게 한 사람들이 있다. 송재 나세찬(松齋 羅世縝)을 비롯 담재 김인후(湛齋 金麟厚) 선생들이 당시 호당수계에 함께 참여한 인물이다.

이들은 성리학(性理學)의 학문적 경지뿐만 아니라 글을 잘하는 선비로서 상호간 시적(詩的) 교류도 비교적 활발하였던 것이다. 湖堂 13인 수계도(修稷圖)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1543년 7월 부수찬 김인후 선생은 경연(經筵)에서 기묘사림 “조광조(趙光祖), 김식(金湜), 김정(金淨), 기준(奇遵), 한충(韓忠), 윤자임(尹自任)” 등의 복권(復權)을 주청(奏請)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 이때가 윤원형(尹元衡)과 윤임(尹任) 사이에 당쟁이 한창일 때다. 동년 12월 선생은 부모의 봉양을 핑계 삼아 전라도 옥과 현감의 외직에서 봉직하다가 그만두고 고향 장성으로 내려와 性理學 연구와 후학 육성에 전념하면서 정철, 조희문, 양자징, 기효간, 변성온, 이지남 등 유능한 제자들을 배출했다.

河西 선생은 일찍이 시강원(侍講院) 설서(정7품)가 되어 仁宗(1515~1545)을 가르친 스승이었다. 世子 시절 仁宗은 河西 선생을 극진히 사랑하여 목죽도를 그려주고 술도 같이 마시곤 하였는데 仁宗이 그린 목죽도는 현재 국립광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1544년 11월에 中宗 임금이 승하하고 인종(仁宗)이 즉위하였는데 선생은 仁宗의 건강을 염려하여 곁에서 모시면서 약(藥)을 의논하기를 자청하였으나 거절당하고 말았다. 1545년 7월 1일 인종 임금은 재위 8개월만에 승하하고 말았다. 생모 장경왕후(章敬王后)를 일주일만에 여원 비운의 왕은 서른의 나이에 요절한 것이다. 문정왕후(文定王后)가 준 떡을 먹고 죽었다는 일종의 독살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명종(明宗)이 즉위하자 선생은 옥과 현감을 끝으로 벼슬을 그만두고 36세의 나이에 아예 세상과의 인연을 끊는다. 이후 明宗이 여러 번 벼슬을 내렸으나 仁宗에 대한 굳은 절의를 지키기 위해 끝내 사양하고 明宗 이후의 관작은 기재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고결한 생을 마쳤다.

1796년 정조대왕(正祖大王)은 하서 선생의 깊이 있는 도학(道學)과 깨끗한 절의 빼어난 문장력을 갖춘 사람이라 높이 평가해 동방 18현의 문묘(文廟)에 배향토록 하는 은전을 베푸시니 포은 정몽주(圃隱 鄭夢周), 정암 조광조(靜庵 趙光祖) 등 18명의 유학자 중 유일한 호남 선비이다.

고종 때 흥선대원군의 서원 훼철에도 전남에서는 河西 선생을 기리기 위해 1590년 세워진 필암서원과 제봉 고경명(霽峰 高敬命) 선생을 모시는 포충사(褒忠祠) 만이 남게 되어 그 가치와 품격을 가히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호남의 하서 김인후 선생을 기리는 필암서원은 영남의 퇴계 이황을 기리는 도산서원과 쌍벽을 이루면서 호남 유학의 정신적 지주로 우뚝 자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생의 일월(日月)과 같은 심오한 도학사상(道學思想)을 재조명(再照明)하여 쇠퇴해가는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고 분단된 남북통일(南北統一)의 시금석(試金石)으로 승화시켜 나가는데 다 같이 동참할 것을 호소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끝으로 하서 선생 춘향제전 수현의 제례를 올리게 되어 더없는 광영(光榮)이 아닐 수 없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河西 金麟厚 선생 시에 대한 후대인의 비평

박 명 희(전남대 호남학연구원)

1. 들어가는 말

河西 金麟厚(1510~1560) 선생은 조선조 문묘에 배향된 18현인 가운데 한 분으로 尤庵 宋時烈은 「河西金先生神道碑銘」 서문에서 ‘본조 인물의 도학·절의·문장이 각기 차등이 있어서, 모두를 겸하여 치우치지 않은 이가 거의 드문데, 하늘이 우리나라를 도와 배출시킨 하서 김 선생만은 예외인 것 같다.’¹⁾ 고 한 바가 있다. 도학과 절의 문장 등을 두루 갖추었다고 함은 하서 선생의 학문적인 면모와 인간적인 모습, 문장 실력 등을 기린 것으로 보통의 문인이 받을 수 있는 찬사는 아니다. 실제 하서 선생의 행적과 저술, 훗날 기록된 자료 등을 통해 보자

면, 이러한 찬사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따라서 현재까지 나온 연구 결과 성과물을 보자면 이러한 모습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편, 하서 선생은 16세기 穆陵盛世期 호남 시단을 이끈 중추적인 역할도 담당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은 16~17세기의 유력한 비평가인 許筠과 李睟光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다. 즉, 허균은 종종 시대 호남의 인재로서 이름을 드날린 이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한 명으로 하서 선생을 지목하였고,²⁾ 이수광도 근래 시인은 대부분 호남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하서 선생을 또한 언급하였다.³⁾ 당시 호남 문인들의 중앙에서의 활약상이 대단하였는데, 그 중심에 하서 선생이 자리하고

1) 宋時烈 『宋子大全』 권154, 「河西金先生神道碑銘 并序」, “國朝人物道學節義文章 有品差, 其兼有而不偏者無幾矣. 天佑我東, 鍾生河西金先生, 則殆庶幾焉.”

2) 許筠 『惺所覆瓿稿』 권23, 「惺翁識小錄中」, “在靖陵朝, 湖南人才之顯于時者甚多, 如朴訥齋昆季, 崔舍人山斗, 眉菴昆季, 梁校理彭孫, 羅提學世績, 林牧使亨秀, 金河西·林石川·宋三宰純·吳贊成謙最著, 其後朴思菴·李一齋·梁松川·奇高峯·高霽峯, 或以學問, 或以文章顯於世.”

3) 李睟光 『芝峯類說』 권14, 文章部7, 「詩藝」, “頃世詩人多出於湖南, 如朴訥齋·林石川·億齡·林錦湖·亨秀·金河西·麟厚·梁松川·應弼·朴思庵·崔孤·竹慶昌·白玉峯·光勳·林白湖·弟·高苔軒·敬命, 皆表表者也.”

있었음을 알려주는 중요 자료들이다. 한국 한시사에서 지금까지 정리된 자료에 근거해 보면, 목릉성세기인 16세기는 이전의 宋詩風이 사라지고 唐詩風이 유행한 시기로 당시 호남 문인들이 문단을 이끌었다고 함은 당시 풍과 따로 떼어서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시점에서 허균과 이수광의 언급은 시사하는 바가 자못 크다.

본 논고는 하서 선생의 지금까지의 논의를 일단 뒤로 하고, 시와 관련된 비평 자료들을 근간 삼아 비평 결과 도출된 양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하서 선생에 대한 총체적인 기록 내용을 담고 있는 전적은 『河西全集』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고에서는 하서 선생 시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우선 생각하여 『하서전집』 외의 자료들에도 주목하였다. 그렇게 했을 때 하서 선생 시를 순수하게 논의하거나 수집 대상에 넣은 저술로는 허균의 『惺叟詩話』·『國朝詩刪』과 이수광의 『芝峯類說』, 李壘의 『松窩雜錄』, 李肯翊의 『燃藜室記述』, 尹根壽의 『月汀漫筆』, 柳夢寅의 『於于野談』, 李裕元의 『林下筆記』, 權鼈의 『海東雜錄』, 李廷馨의 『東閣雜記』, 南龍翼의 『箕雅』, 張志淵의 『大東詩選』, 洪萬宗의 『詩話叢林』, 李圭容의 『海東詩選』, 河謙鎭의 『東詩話』와 마지막으로 『朝鮮王朝實錄』 등이 있다.

『하서전집』을 포함한 여타의 자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서 선생 시를 논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양상을 추출하고자

했을 때 크게 세 가지로 구별되었다. 첫째, 하서 선생의 시 창작 상의 천부적인 재능을 부각한 경우, 둘째 하서 선생의 인품과 시를 연결지어 설명한 경우, 셋째 하서 선생 시의 연원과 시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하서 선생 시에 대한 비평 자료는 문학을 연구하는 기본적인 자료로서 중요할 뿐 아니라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가볍게 넘길 수만은 없다. 본 논고도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겠다.

2. 시에 대한 비평 양상

1) 詩作의 천부적 재능 부각

하서 선생의 시 창작 능력이 천부적으로 뛰어나다는 비평 내용은 첫째, 나이가 어린 데도 불구하고 시를 지었다는 점과 둘째, 상황에 따라 순발력이 뛰어나다는 점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먼저 『임하필기』에 나온 다섯 살 때와 여섯 살 때의 기록 내용과 『연려실기술』에 나온 여덟 살 때 당시 호남 관찰사였던 趙元紀와 酬唱한 사례를 들어본다.

① 김하서가 다섯 살 때 지은 「대보름날 밤」이라는 시에, ‘높고 낮음은 땅의 형세에 따라 생기고, 이르고 늦음은 자연 현상에서 이루어지네. 남의 말을 어찌 다 근심할 수 있겠는가, 밝은 달은 본래 사정이 없는 거라

네.’라고 하였으니, 만고의 공言이다.⁴⁾

② 김인후는 울산 사람으로 호가 하서인데, 여섯 살 때 벌써 시에 능하였다. 어느 손님이 하늘을 가리키며 시를 지어 보라고 하니, 즉시 쓰기를, ‘둥글게 생긴 것이 지극히 크고 아득하여, 널따랗고 텅 빈 채로 땅 가에 둘러 있네. 중간을 두루 덮은 채 온갖 사물을 포용하니,杞나라는 어째서 무너져 내릴까 걱정했나.’ 하였다.⁵⁾

③ 조원기가 호남 관찰사가 되었을 때 공의 나이는 겨우 여덟 살이었는데 한번 보고 기특히 여겨 손을 잡고 어루만지며 무릎 위에 앉혀 놓고 원기가 먼저, ‘完山에 이틀 밤을 묵으니, 梨園 풍경을 만끽하도다.’ 하고 聯句를 말하니 공은 이것을 받아 豐沛 땅에 머물러, 梅亭의 月光을 한껏 보네.’ 하고 화답하였다. 원기가 또, ‘이 아이의 시와 글씨는 杜甫·李白·王羲之의 무리요’ 하니 공이 화답하기를, ‘선생의 처사는 召信臣·丙吉·韓延壽와 같은 분이로다.’ 하였다. 또, ‘5백년의 기간이 이미 지났으니, 하늘이 반드시 성인의 일어남을 기다릴 것이요, 수천년 만에 황하수가 맑아졌으니, 땅에서도 응당 세상에 뛰어난 호걸이 나올 것이다.’ 하는 구절이 있었다. 또 시와 부와 장

편을 짓게 했더니, 구절마다 사람을 놀라게 하였다.⁶⁾

①의 하서 선생이 다섯 살 때 지은 것으로 알려진 「上元夕」은 『하서전집』권5의 오언절구 첫 번째 작품으로 수록되어 있고, ②의 여섯 살 때 지은 것으로 알려진 「詠天」은 『하서전집』권6의 칠언절구 첫 번째 작품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둘의 공통점은 천체 운행과 관련되며 형이상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③의 조원기와 시를 주고받은 사례는 『하서전집』 부록 권3의 「연보」 8세조에도 나와 있는데, 어린 아이임에도 어른과 聯句를 주고받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다.

위와 같이 하서 선생이 어려서부터 시를 창작하는 능력이 출중했음을 여러 기록은 말하고 있는데, 다음의 19세 때의 기록 내용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 해에 선생은 서울에 갔다. 容齋 李荇이 文衡으로 있었는데, 칠석날 泮宮에서 선비들에게 시험을 보였다. 선생은 나아가 응시하여 장원이 되어 그 試券이 사람들의 입에 膾炙되었다. 용재는 남의 손을 빌어서 지은 것이 아닌가 의심하여 선생을 반궁에 있게

4) 李裕元 『林下筆記』권35, 「薜荔新志」.

5) 李裕元 『林下筆記』권24, 「여섯살에 지은 시」.

6) 李肯翬 『燃藜室記述』권9, 「인종조의 명신」

하고 일곱 가지 글제로 시험을 했던 바 선생은 모두 당장에 시권을 바쳤을 뿐 아니라 그 詞致도 아울러 뛰어나니 용재는 경탄해마지 않았다. 그중 「鹽賦」·「盈虛賦」는 문집에 나타나 있다.⁷⁾

문형은 大提學의 다른 이름으로 당시 李荇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 선비들이 제출한 문장을 살폈는데, 하서 선생이 장원으로 뽑혔다는 것이다. 당시 상황으로 보건대, 뜻밖의 사람이 장원으로 뽑히니까 이행이 혹시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준 것이 아닌가 의심까지 하게 되었고, 결국 하서 선생에게 일곱 가지 글제를 내어 다시 시험하자 곧바로 試券을 바쳤을 뿐 아니라 詞致 즉 내용도 뛰어나 이행이 감탄해마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당시 지었던 일곱 가지 글제 중에 들어갔던 「염부」와 「영허부」는 『하서문집』에 남아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기록은 『지봉유설』, 『연려실기술』, 『어우야담』 등에도 보이며, 『하서전집』 부록 권2, 「敍述」에서는 『어우야담』의 내용을 빌어 수록하였다.

이상 하서 선생이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시 창작 능력이 뛰어났음을 여러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하서 선생의 시 창작 능력의 特長은 바로 상황에 따른 순발력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서 선생은 일찍이 30세(1539년, 중종34) 때와 36세(1545년, 인종1) 때 중국 사신이 조선에 왔을 때 접대하는 제술의 직무를 직·간접으로 맡았다. 당시 중국 사신과 우리나라 문인 사이에는 詩作으로 서로 경쟁하여 통상 중국 사신이 먼저 시를 지으면 우리나라 문인이 次韻하는 형식을 띠었는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습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뿐 아니라 순전히 순발력을 발휘해야 했다. 따라서 평소 아무리 시를 잘 지었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인 순발력이 부족하다면, 제술관에 선발될 수가 없었다. 그런데 하서 선생은 이미 이러한 측면에서 인정을 받은 터인지라 30세 때는 간접적으로, 36세 때는 직접 제술의 직무를 맡아 중국 사신을 맞이하였다. 『조선왕조실록』과 『하서전집』에 나온 다음 두 기록은 하서 선생의 이러한 제술과 관련된 것이다.

① 예조가 아뢰기를, “들으니 天使가 시를 많이 짓는다고 합니다. 이미 제술관을 많이 차출하기는 했으나 전 司成 張玉, 學官 沈義, 전 檢閱 南訛年, 생원 申潛, 진사 金麟厚는 혹은 閑散이기 때문에, 혹은 儒生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게 文武樓의 『皇華集』을 내주어 전에 차출한 제술관들

7) 金麟厚, 『河西全集』 부록 권3, 「언보」 19세조.

과 함께 韻에 따라 많이 차운하여 쓰일 것에 대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⁸⁾

② 詔使 張承憲이 國喪에 弔使로 왔는데, 조정에서 선생을 제술관으로 삼아 드디어 부름에 나아갔다. 당시 인종이 새로 즉위하여 내외가 모두 태평성대를 기대했으며, 모두 선생을 만류하여 經筵의 輔導를 맡기고자 했으나 선생은 벌써 기미를 어느 정도 알았던 터라 그냥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았다. 그 사이에 인종이 건강을 잃어 선생이 醫藥에 함께 참여하기를 청한바 藥院에서 직책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선생은 親患을 들어 굳이 청하여 본래 임소로 돌아왔다.⁹⁾

①은 하서 선생의 나이 30세 때 간접적으로 제술의 직무를 담당했던 상황을, ②는 36세 때 제술관으로서 직접 직무를 수행했던 상황을 기록한 것이다. ①의 경우, 당시 명나라 사신 華察과 薛廷寵이 왔었는데, 이들은 전에 그랬던 것처럼 조선의 문인들과 시로써 酬答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①의 내용 중의 ‘천사가 시를 많이 짓는다고 합니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전에 중국 사신과 우리나라 문인 간 수답한 시는 『황화집』이라는 책으로 엮어져 마치 중국

사신과 시를 주고받는 교과서처럼 활용되었는데, ①의 내용 말미에서 이러한 상황을 말하였다.

②의 내용은 중종이 세상을 뜨자 명나라에서 사신 장승헌을 보내왔는데, 하서 선생이 이때 직접 제술의 일을 담당했던 상황을 적은 것이다. 하지만, 제술의 일을 마치자 곧바로 임소로 돌아왔음도 밝혔는데, 이때의 분위기를 『하서전집』 부록 권1의 「행장」에서는 詔使를 대접하기 위하여 조정에 들어오자 邪·正이 서로 의심하여 禍의 기쁨이 심히 위급하여 더욱 힘을 쓸 곳이 없었으므로 또 묵묵히 입을 다물고 곧바로 돌아왔다.’라고 적어 당시 급박하게 돌아가는 政勢를 알려 주었다. 인종은 왕이 된 지 8개월 만에 결국 세상을 뜨고, 大尹·小尹 간의 알력으로 인하여 乙巳土禍가 발발하는데, 그 즈음의 상황을 말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기록을 통해 보자면, 하서 선생은 어렸을 때부터 시 창작의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으며, 이런 천부적인 능력은 훗날 순발력을 요하는 제술의 업무까지 담당하여 文才를 알렸음을 알 수 있다.

2) 시와 人品과의 연결

하서 선생의 인품에 대해 평한 기록은 어

8) 『朝鮮王朝實錄』 中宗 34년 己亥, 4월 3일자.

9) 金麟厚, 『河西全集』 부록 권3, 「언보」 36세조.

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 『조선왕조실록』의 명종 15년 조에 나온 하서 선생의 추記에서 ‘타고난 자품이 淸粹하였다.’고 한 말과 『성소부부고』 권23의 「惺翁識小錄中」에서 梁應鼎이 하서 선생을 가리켜 말한 ‘지금의 顔子이다.’를 대표로 들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이미 말한 대로 송시열은 「신도비명」에서 하서 선생이 절의가 뛰어나다고 평하였는데, 이것도 결국 인품과 관련된 것으로 하서 선생의 인종에 대한 절의를 높이 평가한 것이다. 따라서 우선 하서 선생의 시를 절의와 연결시킨 사례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① 일찍이 「離騷經」을 읽다가 슬퍼하여 시를 짓기를, ‘푸른 나무 강 위에 부르지 못한 혼이여, 밝은 해가 어느 때에 원통함을 비취 주리. 水神이 타는 수레가 소식이 끊어졌으니, 석양에 눈물을 천지에 뿌리도다.’ 하였다. 또 문인을 가르칠 적에 『宋史』를 읽다가 秦檜가 岳飛를 죽인 일에 이르러 책을 덮고 눈물을 흘리며 시를 짓기를, ‘전년에 초사 읽다가 슬픔이 마음에 일어나더니, 오늘 아침 송사에 눈물이 옷깃을 적시네. 다른 시대의 충신과 소인이 어찌 나에게 관계되랴만, 자연히 서로 느껴 부질없이 슬피 읊조리네.’ 하고, 드디어 술을 실컷 마시고 말았다. 때는

정미년과 무신년 무렵이었다.¹⁰⁾

② 어떤 사람이 인종 승하의 곡절을 자세히 말하자, 듣고 놀라 울부짖으며 슬퍼하여 몸이 수척하여 문을 닫고 병을 핑계 삼아 세상 일을 물리쳐 버리고 다시 벼슬에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매양 여름과 가을이 교차되는 시기면 읽던 책을 치우고 용모를 바르게 한 다음 슬퍼하였으며, 매양 인종의 제삿날을 당하면 곧 집 남쪽 卵山 속에 들어가 해가 질 때까지 통곡하다가 돌아와 의지할 곳이 없는 듯이 하였다. 일찍이 「有所思篇」과 「吊申生辭」를 지었는데 정성과 슬픔으로 말의 내용이 격렬하니 이른바 더욱 분해하고 번민하며, 지극히 비애하다는 것으로서 사람이 읽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머리털이 치솟고 심장이 찢어지는 듯하였다.¹¹⁾

하서 선생의 「연보」 36년 조에 따르면, ‘선생은 승하의 소식을 듣고 失聲해서 부르짖고 가슴을 두드리며, 살고 싶지 않은 듯이 하여 거의 心疾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이내 소생하여 병으로 사직하고 귀가하여 인사를 폐하고 다시 仕進할 마음을 갖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이로써 인종의 승하 소식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하서 선생은 인종이 왕 위에 오르기 전의 스승으로서 어진 政事를 펴리라 기대하였는데, 갑작스럽게 세상

10) 李廷馨, 『東閣雜記下』, 『본조선원보록』 2

11) 李肯翊, 『燃藜室記述』 권9, 「인종조의 명신」

을 뗐다는 소식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위의 ①과 ②의 기록은 인종이 세상을 뜬 후 하서 선생이 어떤 마음 가짐을 가졌었는지를 알려준 것으로 특히, 시와 연결 짓고 있어 의미가 있다.

①에서 언급한 「離騷經」은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 屈原이 憂國衷情을 담아 지은 자서전적인 시로서 하서 선생이 「이소경」을 읽다가 느낌이 생겨 시를 지었다라고 하였다. 하서 선생 자신과 굴원의 처지가 비슷하다고 생각,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까지 지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작품은 『하서전집』 권6의 「讀楚辭 次陳惟善韻 示景范求和」의 두 번째 시이다. 또한 문인들을 가르칠 때 『송사』를 읽다가 진희가 악비를 죽인 일에 이르러 또한 느낌이 일었음도 말하였다. 악비는 중국 남송 초기의 武將이자 학자로서 북송이 멸망할 무렵 의용군에 참전하여 전공을 쌓았는데, 무능한 고종과 재상 진희에 의해 살해된 인물이다. 충신 악비가 간신 진희에 의해 죽임을 당하자 하서 선생이 눈물을 흘렸다고 했는데, 나라를 위하는 악비의 진정한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던 현실이 안타까웠기 때문일 것이다. 하서 선생은 이러한 심정을 시로써 드러내었는데, 인용문에 나온 시는 『하서전집』 권6의 「魚巖雜詠」 열일곱번째 작품이다.

②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인종의 승하 소식을 들은 하서 선생이 세상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부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자신의 所懷를 「유소사편」과 「조신생사」 시에 드러내었는데, '정성과 슬픔으로 말의 내용이 격렬하다.' 라고 하여 두 작품의 전반적인 風貌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언급하였다. 「유소사편」은 「有所思」라는 詩題로 『하서전집』 권3에, 「조신생사」는 『하서전집』 권1에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申生'은 중국 晉나라 獻公의 태자 신생을 말한다. 현공이 驪戎을 정벌하고 驪姬를 얻었는데, 여희와의 사이에서 奚齊를 낳았고, 여희는 욕심을 부려 태자 신생을 폐하고 자신의 아들 해제를 태자로 세우고자 신생을 모함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 역대 중국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역사적 인물이 있었는데, 김인후는 왜 하필 신생을 택하여 그의 죽음을 위로하고자 했던가? 이는 필시 당시 인종의 죽음과 관련 지어 하고 싶은 말이 많으나 직설적으로 할 수 없음에 유사한 상황에 죽음에 이른 신생을 택하여 인종 죽음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다. 「유소사」와 「조신생사」는 인종의 죽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정신을 가다듬을 겨를이 좀처럼 없었을 수도 있다. 때문에 내용이 격렬하고 분에 가득 차 있으며, 슬픈 감정이 많아서 사람들이 읽고 나서 자신도 모르게 머리카락이 솟고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하서 선생은 인종이 세상을 뜨자 그에 대한 절의를 직접 시를 지어 보여주

었으며, 그러한 시의 경우 도학적인 분위기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인간의 감정을 스스로 없애고 드러내었다고 하겠다.

한편, 다음의 사례도 하서 선생의 시를 인품과 연결 지은 것이다.

하서 김인후는 高曠하고 夷粹한데 시 역시 그 인품과 같았다. 梁松川은 그의 「登吹臺」시를 극찬하여 高適·岑參의 높은 운이라 했다고 한다. 그 시에, '梁王이 노래하고 춤추던 곳에, 오늘은 나그네가 올라왔노라. 구름을 능지를 강개한 흥취, 옛을 묻는 처량한 마음이로세. 긴 바람은 먼 들판에 일어나는데, 밝은 해는 層山 뒤에 숨어 버리네. 그 시절의 변화한 일들을 이제, 아득하니 어디에서 찾아보리오'라 한 것은 沈着하고 俊偉하여 가늘고 약한 태를 일시에 씻어버렸으니 참으로 귀중히 여길 만하다.¹²⁾

먼저 하서 선생의 인품이 高曠·夷粹, 즉 마음이 높고 넓으며, 평화롭고 순정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시도 그 인품을 닮았다고 하면서 양응정이 중국 盛唐 때의 시인인 高適·岑參의 운과 같다고 평한 「등취대」시를 예로 들었다. 吹臺는 중국 개봉에 있는 누대로서 춘추시대 師曠이 음악을 연주하던 곳이다. 훗날 양왕이 이를 증축하여 明臺라 이름

하고 항상 이곳에서 가무를 즐겼다고 한다.

이렇듯 변화했던 곳이지만 후대에는 황폐해졌기 때문에 역사의 무상감이 자리하게 된 것이다. 곧, 하서 선생의 「등취대」시는 경물을 통하여 역사에의 무상감을 뛰어넘게 형상화했기 때문에 허균은 침착하면서 준위하다고 평한 것이다. 「등취대」시는 『하서전집』 권8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양응정뿐 아니라 특히 허균이 비평 대상으로 삼았다고 함은 문학적 성과 차원에서 하서 선생의 대표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상과 같이 하서 선생의 시와 인품을 연결지어 논한 경우를 보면, 그의 절의 정신을 크게 부각시켰으며, 한편으로는 성품과 시를 연결짓기도 하였다.

3) 詩學의 연원과 시의 성격 규정

하서 선생은 학자이면서 1,600여 수의 시를 남긴 시인이기도 하다. 때문에 훗날 시를 평한 비평가들은 하서 선생의 시에 주목하였고, 그와 관련된 여러 기록 자료를 남겼다. 조선조 문인들은 학자이면서 시인이요, 문장가로서 일정 기간 수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당연하였는데, 하서 선생도 마찬가지로 시 창작을 위한 숙련의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이러한 詩學의 연원을 담은 직접적인 자료로는 朴世采가 쓴 「행장」을 들 수 있다.

12) 許筠, 『惺所覆瓿稿』 권25, 「惺叟 詩話」

선생의 詩賦는 國風에 뿌리를 두고 楚騷와 靑蓮을 참고하여 무릇 느낌이 있으면 한결같이 辭賦에 그것을 나타내었다. 맑으면서도 激하지 않고, 곧으면서도 迫切하지 않으며, 즐거우면서도 조용하고 화기로운 기품이 있고, 근심하는 가운데에서도 원망하고 슬퍼하는 뜻이 적으니 이는 다 성정을 다스리고 도의를 풀어내어 그윽한 비분을 의탁한 것으로 바름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적다.¹³⁾

박세채는 하서 선생은 시학의 연원을 우선 『詩經』에 두고, 그 외에 楚辭와 離騷 당 때의 시인인 李白의 시를 참고하여 느낌이 있을 때면 당연히 辭와 賦에 그것을 나타내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뒤이어 하서 선생 시의 성격을 규정하였는데, ‘맑으면서도 격하지 않고, 곧으면서도 박절하지 않으며, 즐거우면서도 조용하고 화기로운 기품이 있고, 근심하면서도 원망하고 슬퍼하는 뜻이 적다.’라고 하여 감정의 절제와 中庸의 미덕을 보였음을 밝혔다. 아무리 느낌을 거리낌없이 나타내는 시일지라도 학자적인 자세와 면모를 결코 저버리지 않았음에 초점을 맞춘 언급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趙希文이 쓴 서문의 내용을 통해서도 하서 선생 시의 연원과 시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선생의 시문은 위로는 堯舜과 三代를 거슬러 올라가고 楚漢唐宋을 뛰어넘었다. 조예의 깊이는 옛 성현의 깊은 이치를 파헤쳤고, 말을 엮어 만든 묘미는 사물의 정상을 다하여 정밀한 뜻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었다. 한번 날로 하면 한 번 씨로 하여 마치 봄바람이 외물에 불면 외물마다 각기 저절로 번영하는 것과 같아서 조화의 진경이야말로 사람의 힘을 용납하지 않았다. 젊어서의 작품은 和平하고 沖澹한 맛이 많으면서 호방한 기운이 있었으나 만년에는 다시 고명하고 순정함을 깨닫게 하면서 간혹 강개 비분한 언사가 있으니……¹⁴⁾

하서 선생 곁에서 직접 배운 제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스승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 위의 글은 우선 그러한 측면에서 주목을 요한다. 조희문은 먼저 하서 선생의 시가 멀리 중국의 요순 시대와 삼대에까지 닿아있으며, 초·한·당·송은 뛰어넘을 정도로 훌륭하다고 하였다. 또한 옛 성현의 깊은 이치를 파헤쳤고, 말을 만드는 묘미는 사물을 잘 형용했기에 정밀한 뜻이 다 드러났다고 하였다. 즉, 시를 통해 사물을 精緻하게 표현했음을 나타낸 말이다. 그러면서도 한번 날로 하면 한 번 씨로 하듯이’ 조화의 묘미를 이루어 내었다고 하여 결코 정미로운

13) 金麟厚, 『河西全集』부록 권1, 「行狀」

14) 金麟厚, 『河西全集』권수, 「河西先生全集舊序」

표현에만 치중한 것은 아님을 말하였다. 또한 젊어서의 시와 만년의 시가 그 성격상 달랐음을 말하였다. 이것은 하서 선생 시의 변모 양상을 말한 것으로 일생 동안 지은 시가 상황에 따라 변화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곧, 하서 선생의 젊어서의 시는 화평하고 충담하면서도 호방한 기운이 있었는데, 만년에 지은 작품을 보면, 고명하고 순정한 반면, 때로는 비분강개한 면모도 엿보인다고 하였다. 하서 선생의 일생을 보면, 젊어서는 신변에 큰 변화가 없이 혈기왕성한 청년으로서 학문을 연마하는 데 치중했을 것이기 때문에 화평하면서도 호방한 표현이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30대 중반에 겪은 두 임금의 연이은 죽음은 하서 선생 개인으로서 큰 충격이었고, 아픔이었기 때문에 고명하고 순정한 중에도 가끔은 비분강개의 뜻을 시에 나타냈을 것으로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당시는 士林이 세상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에 드러난 비분강개함의 정도는 더욱 더 컸을 것은 자명하다.

3. 나오는 말

지금까지 하서 선생 시에 대한 후대인들의 비평 양상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출발은 하서 선생 시에 대한 비평 자료가 문학을 연구하는 기본적인 자료로서 중요할 뿐 아니라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

문에 가볍게 넘길 수만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 결과 세 양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는데, 첫째 하서 선생은 어려서부터 시 창작 능력이 출중하였으며, 둘째 하서 선생의 시에서 그의 고매한 인품이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시의 연원과 시의 성격을 규정한 것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양상을 통해 하서 선생은 어렸을 때부터 시 창작의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으며, 이런 천부적인 능력은 훗날 순발력을 요하는 제술의 업무까지 담당하여 문재를 알렸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하서 선생의 시와 인품을 연결지어 논한 경우를 보면, 그의 절의 정신을 크게 부각시켰으며, 한편으로는 성품과 시를 연결짓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하서 선생 시의 연원은 우선 『시경』에 두고, 그 외에 초사와 이소, 당 때의 시인인 이백의 시를 참고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생애의 전환기를 맞아 시의 성격이 화평한 데에서 비분강한 측면으로 변모되었음도 간파하였다. 결국 이러한 시 성격의 변모는 하서 선생 시를 파악하는 중요 부분으로서 특히, 생애 후반기에 지어진 시가 비분강개했다고 함은 主情的인 요소가 강하게 반영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으로 인해 하서 선생은 성리학자이지만, 순수 서정을 읊은 시인으로서도 기억될 수 있었다.

필암서원 춘향제 지내다

초헌관에 최상옥 회장

하서 김인후 선생과 고암 양자징 선생을 기리는 춘향제가 지난 3월 7일(음2월 15일) 10시에 필암서원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춘향제에는 오인균 산양회 이사장, 최상옥 남화토건 회장, 송준빈 남간사 도유사, 공기옥 경남 김해향교 유도회장, 송용수 은진송씨 문중 도유사, 이홍규 김해 월봉서원 도유사, 변온섭 전 성균관 유도회 중앙회장, 김양수 장성군수를 비롯한 장성 유림, 김인수 문정공파 도유사를 비롯한 울산김씨 종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적인 제례의식에 따라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봉진례, 전폐례에 이어 초헌관에는 본회 고문인 최상옥 회장이 아헌관에는 공기옥 김해향교 유도회장이, 종헌관에는 송용수 동춘당 종중회장이 각각 헌작했다.

조선시대 위대한 도학자인 하서 김인후 선생을 모시는 필암서원은 한국의 대표적인 서원으로 소수서원, 도산서원과 함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해 놓고 있다. 필암서원과 장성군에서는 유교 문화의 전통을 보전하고, 하서 선생의 도학 사상을 교육하고 실천하는 활동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

2011년도 본회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회

12월 20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2011년도 본회 정기총회와 학술강연회가 12월 20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150여명의 회

원과 이 고장 유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본회 박래호 총무 사회로 진행된 총회는 국민의례에 이어 백록동 학규를 낭독한 후 본회 오인균 이사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오인균 이사장은 차정현 보학회장, 이정희 전 관선회장 등 귀빈들을 소개한 후 1953년 산양계로 출범한 후 2001년 8월 22일 산양회로 재발족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참여해주신 회원들과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았음을 보고하였다.

이어서 김인수 문정공파 도유사는 법인체가 된 산양회가 유교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고 하서 선생의 높은 학덕을 실천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말했다.

김장수 감사의 감사보고에 이어 오인균 이사장의 사회로 2011년도 수입지출 결산과 2012년도 사업계획안과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의하여 통과시켰다.

오인균 이사장이 임원선임, 사업계획,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이사회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총회에서 위임해 줄 것을 발의하였고, 정환담 이사가 위임해 주시면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총회에서 확정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산양회보에 게재하겠다고 하여 통과되었다.

이어서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이애희(李愛熙) 교수가 <하서 김인후의 성경사상(誠敬思想)>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이 교수는 하서 성경 사상의 근간을 학문관, 세계관, 인간관에 따라 설명하고 하서 선생의 성경관에 대해 논하였다. 이교수는 “하서는 성리학적인 수양 이론

을 자신의 성경설로 재구성하였다... 하서는 본심(本心)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경(敬)에서 찾는다. 그는 경이란 사려를 안정시키고 정신을 수렴하여 도덕성을 함양하는 도리라고 말한다... 아울러 그는 경(敬)을 성학(聖學)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정의하고, 우리가 참다운 인격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잠시라도 경을 떠나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하서는 인간의 궁극적인 완성은 자신을 넘어서서 모든 이웃까지를 완성해주는 단계에 이르러야함도 강조한다. 이는 충용의 성지(誠之)의 정신과 통하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강연 내용은 산양회보 18호를 참고할 것)

2012년 본회 임원회의에서

하계 학술 강연회 및 회보 발간 논의

금년 상반기 임원회의가 지난 5월 18일 17시 예원식당에서 열렸다. 오인균 이사장을 비롯하여 김용숙 상임고문, 장원석, 정채호, 정환담, 김재수 부회장, 김인수 도유사, 박래호 총무, 김장수 감사, 김종환, 이충원, 김병국씨 등이 참석하였다. 오인균 이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안건으로 2012년 하계학술 강연회 일정과 초청강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하계강연회를 7월 4일에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열기로 하고 초청연사로 조기영 박사, 박명희 박사에게 청탁하기로 했다. 버스 대절, 점심식사 준비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어서 산양회보 19호 편집에 대한 의견을 의논했다. 유당 최상옥 회장의 춘향제 인사말, 하

서 선생이 지은 광주향교가에 대한 해설(김장수 감사), 하서 선생의 정신을 계승한 창평의숙에 대한 글(정환담 부회장)을 신기로 했다.

또한 법인정관을 게재하고, 회원 주소록을 정리하여 신기로 했다. 임원들의 추천을 받아 본 회고문을 추대하기로 했다. 법인 운영 세칙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정채호 부회장의 제의가 있었다.

본회 김장수 감사

〈길路 위에 길道 있으니〉 편찬



동양문헌학회 이사이며 본회 감사인 김장수 씨가 우리 고장의 역사와 인물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 광주시 도로명에 붙인 훌륭한 우리 고장 인물들의 생애를

충실하게 기술한 〈길路 위에 길道 있으니〉를 편찬하여 동양문헌학회에서 발간하였다. 특히 〈하서로〉에 대한 설명에서 하서 김인후 선생을 매우 충실하게 소개하였다.

필암서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정부 내년 정식 등재 신청

장성 필암서원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추진된다.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최대용 국가브랜드위원회 사업지원단장, 김양수 장성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서원' 세계

유산 등재 관련 기관 업무협약을 맺고 필암서원의 등재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1590년에 세워진 필암서원은 국가사적 242호로 평지에 세워진 서원 건축의 대표적 사례다. 도학자 하서 김인후를 제향하는 필암서원은 조선시대 서원의 전형을 유지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서와 전적 목판 등 조선시대 서원 운영과 선비 교육에 관한 기록 자료도 소장하고 있다. ‘한국의 서원’은 도산서원, 소수서원, 필암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옥산서원, 남계서원, 돈암서원, 도동서원 등 9개 서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남도는 문화재청과 국가브랜드위원회, 서원 소재 지방자치단체, 서원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과 공조해 장성 필암서원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선비의 고장 장성, 청렴 교육 일번지로 떠오른다

선비의 고장 장성이 <청렴교육> 일번지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공직 사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청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장성군의 청렴 문화 체험 교육에 주목, 중앙부처는 물론 전국 각지의 공직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금년 3월에는 충남 부여군청 공직자를 비롯해 600여명이 넘는 외부 공직자들이 장성을 다녀갔다. 지방행정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부여군청, 광주시 북구청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1박 2일 일정으로 장성을 방문하는 이들은 청백리로 유명한 아곡 박수량(1491~1554) 선생과 지지당 송흠(1459~1547) 선생의 생애와 공직관

에 대한 강의를 듣고 백비와 관수정을 탐방하며 청렴 정신을 배운다.

최근에는 경남개발공사, 광주시와 전라북도 교육연수원, 농업정책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등이 참여했으며 정부투자기관을 비롯해 매일 전화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특히 지방행정연수원 청렴교육 선호도 조사에서 80%가 장성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선보인 ‘청백리 밥상’은 교육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친환경 식재료로 만든 1식 4찬의 소박한 밥상에 편백잎으로 찐 달걀로 영양을 보충한 청백리 자연 밥상은 남도의 깊은 맛까지 살렸다는 평가다.

앞으로 절의에 빛나는 하서 김인후 선생의 선비 정신과 동학과 호남 의병의 애국 정신을 교육한다면 공직자 청렴교육의 메카로서 확고하게 자리잡을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

하서 김인후 생가터 유적 발굴

장성군은 1월 전남문화재연구원에 의뢰해 하서 김인후 선생 생가터(전남 장성군 황룡면 맥호리) 유적 발굴조사를 했다.

생가터에서는 조선 중기 때 도량 모양의 석렬과 계단 시설, 소토흔 등 유구와 분청사기, 백자편 등 유물이 발굴됐다.

김인수 도유사는 “이번 조사에서 최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돼 앞으로 정밀 조사를 벌여 생가터를 문화재로 지정한 뒤 전통양식으로 하서 생가를 복원할 계획”을 이라고 말했다.

수당재단과 모암장학회 지역 인재양성 장학금 지급

“재단법인 수당(연수)재단”과 “재단법인 모암(노수) 장학회”는 2012년 장학생으로 선발된 장성 관내 고등학교 학생 39명에 대해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지난 4월에 전달하였다.

재단법인 수당재단 김상하(하서 14대손) 이사장은 2012년부터 매년 성적이 우수한 장성 관내 고등학생 30명을 장성군으로부터 추천 받아 1인당 8십만원 1년 동안 2천4백만원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금년분 2천4백만원을 4월 18일에 지급하였다.

재단법인 모암장학회 김상기(하서 14대손) 이사장(황룡 출신)은 12년 전부터 우수 고등 학생에 지급하던 장학금을 인상상.하반기로 구분 1인당 3백만원 년 2천7백만원을 금년에 지급하기로 했다.

수당재단 김상하이사장과 모암장학회 김상기 이사장은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부에 뜻이 있고 의지가 있는 모범적인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부디 학업에 매진하여 훌륭한 인재가 되어주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하였다.

하서 유적지 탐방 글짓기 대회

전통을 이어 미래를 여는 유적지 탐방

전남의 대표적인 유학자 하서 김인후(1510-1560) 선생의 절의와 사상을 배우는 제10회 한글 백일장 입소식이 5월 12일 장성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있었다.

하서 김인후 선생의 사상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울산김씨 문정공 대종중과 필암서원 한글 백일장 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장성 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은 초등학생 36명이 참가하였다.

추진위원회는 이번 대회에서 뛰어난 글 솜씨를 선보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을 선발 오는 10월 3일 필암서원 추향 제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필암서원 집성관

선비 정신, 청렴 교육 메카로 도약

전통을 이어 미래를 설계하는 ‘유학 전통의 특징’인 선비 정신과 청렴 교육을 실시하는 장성 필암서원 집성관(교육관)이 개관(2010년 3월 31일 개관) 2년만에 전국 공무원 기관 단체 임직원 및 공공기관 회사원 등의 정신교육 메카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장성군의 집성관 운영(교육)계획은 총 4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자들은 성현(선비)들의 사상과 정신 그리고 청렴 강의(간접체험)를 들은 후 대현들의 유적지 현장체험을 통해 성현들의 삶에 공감대를 얻도록 하고 있다.

선비 교육을 최초(2011년11월)로 실시했던 중앙 공무원 5급 승진자 과정 86명을 시작으로 2012년 6월 초까지 총 50개 기관 약 6,000명 이상이 집성관에서 선비 교육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현상은 공직자들에게는 올바른 윤리관 즉 승조 사상, 부패 근절, 청렴 실천은 물론, 장성이 선비 정신 교육의 본고장이란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군민들에게는 훈훈한 지역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사단법인 필암서원 산앙회 정관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18현 중의 한 사람인 하서 김인후 선생의 도학, 절의, 문장 등 도학사상 및 철학을 심층 연구, 조사하여 보급하는 등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고자 함에 목적을 둔다.

제 2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필암서원 산앙회 (社團法人 筆巖書院 山仰會 이하 “이 법인”이라 칭한다)라 한다.

제 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필암서원로 184번지 소재 필암서원에 둔다.

제 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하서 김인후 선생의 도학, 절의, 문장, 등성학 사상 및 철학의 심층 연구, 조사, 강독, 보급 활동

2. 위 1호에 대한 학술회의 개최 및 회보집 발간 활동

② 제 1항의 목적 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 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③ 제 2항의 수익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조(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이 법인의 목적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 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장 회원

제 6조(회원의 자격과 구분) 이 법인의 회원은 이 법인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이 법인에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 의 승인을 얻어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필암서원 산양회 회원으로서 창립 총회 시 가입한 회원은 정회원으로 간주한다.

제 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정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총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이 정관에 정한 총회 및 이사회 의 의결사항을 준수하는 의무를 갖는다.

제 8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9조(회원의 징계)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이 법인의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다. 단, 징계의 종류는 견책, 권리 정지, 제명 등으로 한다.

제 3장 임원

제 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0인(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2. 감사 2인

제 11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이사 및 감사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

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12조(임원의 선임 방법) ① 임원(이사장 포함)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3조(이사장의 임기)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14조(이사장 및 이사 등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5조(상임이사) ① 이사장은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업무를 보좌하여 일상 업무를 관장한다.

제 16조(이사장 직무 대행자의 지명) ①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③ 제 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 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 또는 자진 출석하고 출석이사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되며, 출석이사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 대행자를 지명한다.

제 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연 1회 이상 감사하는 일
2. 법인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교육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 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에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 4장 총회

제 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 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 사항

제19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

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 20조(총회의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제1항과 2항의 의결권은 개최 전에 의장에게 인감 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하여 총회에 출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21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2조 (총회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정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정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 23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서,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이 법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집행이 긴급하거나 중요한 사항

제 24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5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6장 재산 및 회계

제 27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교육청의 승인을 얻는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
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제 28조(재산의 관리) ① 제27조 제 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의 매수, 기부 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9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 30조(재정) ①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조달한다.

1. 회원의 회비(회비는 1인당 연 4만원으로 한다.)

2.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 수입

3. 기부금

4. 가입비(가입비는 3만원으로 한다.)

5. 출연금품

6. 기타 수입

②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한 회원의 회비 및 가입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 31조(예산 외의 채무 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의 차입(이하 “장기차입”이라 한다)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 32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 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33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4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5조(세입세출 예산) 이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1월 전까지 사업 계획서와 함께 이사회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 36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필요비는 이사회회의 결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7장 보칙

제 40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1조(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전라남도교육청에 귀속된다.

제 42조(정관 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3조(시행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제 44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광주광역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광주일보에 공고

하여 행한다.

1. 이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2. 이 법인의 목적 사업을 변경할 경우

제 45조(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주소	임기
이사장	오인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60-12 주공아파트 20-204	2년
이사	김인수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1089-2 우미3차아파트 302-303	2년
이사	정채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270 신창2차부영아파트 205-1303	2년
이사	정환담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115-4	2년
이사	장원명	광주광역시 동구 윤림동 583 라인아파트 101-303	2년
이사	김재수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392 금광하늘연가아파트 102-901	4년
이사	박래호	전남 장성군 장성읍 기산리 313	4년
이사	김병국	전남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225	4년
이사	양희택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606	4년
이사	이충원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57-3	4년
감사	김장수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42-52	2년
감사	김종환	광주 북구 임동 92-123	1년

부칙

제1조 :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 개정 정관마다 표시하되, 개정 정관의 부칙에는 개정 정관 허가 연월일을 기재한다.

特別會費 誠金內譯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지면을 통하여 감사드립니다.

姓 名	金 額
(주)삼양사 (광고비)	2,000,000원
전남도 문예기금	2,000,000원
산양회 이사장 (오인균)	500,000원
문정공 부도유사 (김상현)	100,000원
산양회 감사 (김장수)	150,000원
문정공 도유사 (김인수)	1,000,000원
산양회 이사 (이충원)	200,000원
산양회 총무 (박래호)	100,000원
산양회 재무 (양희택)	100,000원
산양회 이사 (김재수)	300,000원
광주시 동구 (염규홍)	100,000원

화 화 기 증 자

울산김씨 대종회장 김달수

울산김씨 문정공 대종중 도유사 김인수

광주향교 전교 정남호

울산김씨 밀등회회장 김용대

울산김씨 장성종친회장 김 광

울산김씨 장성 공직자 모임

그레이스 회원 원장 김동원

2012年 3.7(陰曆 2.15)

筆巖書院 春享祭 獻誠金 內譯

연번	금액	성명	주소
1	1,000,000	백일장	필암사원 한글 백일장 위원회
2	500,000	오인균	필암사원 산양회 이사장
3	500,000	최상욱	초현관 남화토건 회장
4	500,000	김인수	문정공 도유사
5	300,000	소쇄원	담양군 소쇄원 양씨 종중
6	200,000	김양수	월평파 종친
7	200,000	안병현	장성농협지부장
8	200,000	감찰공	맥동파 감찰공 종중
9	100,000	송용수	종현관 동춘당 종중회장
10	100,000	김상돈	문정공 부도유사
11	100,000	송준빈	남간사 도유사
12	100,000	김상현	문정공 부도유사
13	100,000	김경수	광주시 북구 운암동
14	100,000	김병국	필암사원 별유사
15	100,000	김달수	울산김씨 대종회장
16	100,000	김문수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17	100,000	각제공	문정공파 각제공 종중
18	100,000	김종욱	장성군 교육지원청장
19	100,000	영귀사원	전남 곡성군 영귀사원
20	100,000	김관중	장파 도유사
21	100,000	박용우	장성군 황룡면장
22	100,000	김상준	라인건축설계사무소 회장
23	100,000	김창수	광주시 북구 운암동 계파 도유사
24	50,000	김재수	광주시 본손
25	50,000	김성수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26	50,000	변 원	봉암사원
27	50,000	이권한	장성유도회 회장 삼계면
28	50,000	김상권	장성군 황룡면
29	50,000	정종연	바르게살기운동 장성군협의회회장
30	50,000	김 광	장성군 종친회장
31	50,000	이한수	광주시 광산구 장수동 320-1
32	30,000	김영풍	장성 문화원장
합계	5,330,000	32명	

- 알 림 -

본 회 2012년 29차 하계 학술 강연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다수 참석 바랍니다.

- 일 시 : 2012년 7월 4일(수요일) 10 : 30
- 장 소 : 장성 필암서원 집성관
- 주 제 : 하서 김인후선생의 시문학에 대한 후인들의 평가 : 박명희박사(전남대 호남학연구원)

2. 원고 모집 안내

- ① 河西 선생과 교유한 人物 ② 河西 선생에 관한 새 자료 ③ 山仰會에 대한 제언 및 건의
- 보내실 곳 :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77번지 필암서원 산양회
- 200자 원고지 14~28매 내외의 분량으로 하되, 보내신 분의 주소 성명과 전화번호를 꼭 적어 보내시기 바랍니다.
- 보내주신 원고는 편집회의를 거쳐 회보에 게재하겠습니다.

3. 새 주소록 변경 안내

- 앞으로 새 주소록을 만들려고 하니 새로이 시행될 주소를 방명록에 꼭 적어주십시오
- 변경된 전화번호도 꼭 적어주십시오

4. 회비 입금 계좌 안내

- 사정상 회의에 나오시지 못한 회원께서는 회비를 다음 계좌로 불입하실 수 있습니다.
장성 농협 (301-0093-8931-91) (사)필암서원 산양회

5. 입회 절차 안내

- 신규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총회 또는 강회에 직접 나오시거나 전화로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위의 농협계좌(301-0093-8931-91) (사)필암서원 산양회로 입회비 3만원을 입금하시고 전화(010-6712-8881 박래호)로 다음 사항을 알려 주십시오. 입회원서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姓名 :	本貫 :	雅號 :	生年月日 :
住所 :	전화번호 : 자택 : 휴대폰 :	現職 :	學歷 및 經歷 :

- 청년, 여성, 유림의 입회를 적극 환영합니다.

사단법인 필암서원 산양회 이사장

... 筆巖書院 山仰會 活動事項 ...

- 2002. 12. 23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 선생의 선비정신” 주제 아래 전주대 吳鍾逸 교수의 강회.
- 2003. 3. 15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춘향 후 “하서 문학의 도학적 이해”의 주제 아래 朴竣圭 전남대 명예교수(가사문학관장)의 강회.
- 2003. 5. 28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한시 백일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安淸畹 산양회장(전남대 명예교수, 다산학 연구원장)의 특강.
- 2003. 7. 13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현대 한국유교의 과제” 주제 아래 서울대 종교학과 금장태 교수가 강연함.
- 2003. 9. 23일 추향제를 올리고 “하서 선생의 경연 활동과 군주 교육”이라는 주제로 전남대 안동교 교수가 강연함.
- 2003. 12. 17일 산양회 정기 총회, 安淸畹 회장과 金長洙 총무가 사임하고 새 회장에 朴鍾達, 새 총무에 孔鍊雄 선임.
“河西詩의 道學的 성격”이라는 주제로 연세대 국학연구원 金永峯 교수가 강연함.
- 2004. 3. 9일 춘향제를 올리고, 서울대 박병호 교수가 河西 선생이 경연과 세자시강원에서 강한 내용을 조선왕조실록에서 뽑아 강연함.
- 2004. 9. 25일 추향제를 올리고, 최근덕 성균관장이 “河西의 학문적 연원과 성리학적 위치”라는 주제로 강연함.
- 2004. 12. 10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河西의 經濟思想”이라는 주제로 고려대 이현창 교수가 강연함. 山仰會報 4호 발행.
- 2005. 3. 28일 춘향제를 올리고, “한국 유림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고려대 전 총장 洪一植 박사가 강연함.
- 2005. 6. 30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계 학술강연. 연세대 송주호 교수가 “河西詩의 몇 가지 국면”이라는 주제로 강연.
- 2005. 9. 20일 추향제 올리고, “河西 선생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주제로 이준범 고려대 전 총장이 강연함.
- 2005. 12. 8일 산양회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 박종달 회장이 연임되고, ‘河西 선생의 中和思想’이란 주제로 전주대학교 吳鍾逸 교수가 강연함.
- 2006. 3. 20일 춘향제를 올리고, 노강 박래호 총무가 河西 선생의 『復性賦』를 낭독하고 강론.
- 2006. 7. 5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하계 학술강연. 서강대 백승중 교수가 ‘조선전기의 사림정치와 하서 김인후’라는 주제로 강연함.
- 2006. 10. 1 추향제를 올리고, “政治人이 우리러보는 河西 先生”이라는 주제로 초현관 李重載 상임고문이 강연함.
- 2006. 12. 13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 「하서 김인후와 미암 유희춘」이란 주제로 조선대학교 이종범 교수가 강연함.
- 2007년 4. 3 춘향제 올리고 ‘하서 선생이 21세기에 유림에게 던지는 메시지’란 주제로 변은섭 유도회 총본부 회장이 강연했음.
- 2007년 12. 21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조선시대 禮學의 발전과 禮治」라는 주제로 광주대학교 고영진 교수가 강연.
산양 회보 10호 발간. 吳仁均 신임회장 선출.
- 2008년 3월 18일 춘향제 올리고, 「하서선생과 가사문학」이란 주제로 문정규 전 담양군수 강론.
- 2008년 7월 17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박준규 박사가 「河西 문학의 道學的 이해」 강연. 산양 회보 11호 발행.
- 2008년 9월 20일 추향제 올리고, 柳承國 원장이 「東아시아 사상 基調로서의 道와 河西思想」이라는 주제로 강연.
- 2008년 12월 23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김재수 교수가 「河西는 佯狂爲奴論을 왜 썼는가」 강연함. 산양 회보 12호 발간.
- 2009년 3월 13일 필암서원에서 春香祭 올리고 安炳周 박사가 「하서 김인후 선생의 학문」의 주제로 강연.
- 2009년 7월 1일 崔山斗 先生の 도학정신(최대우 교수) 강연, 山仰會報 13호 발간.
- 2009년 9월 29일 추향제. 이동준 성균관대 전 유도대학장이 「하서 선생의 학문 세계」 강연.
- 2009년 12월 23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이준영 감사 「예기유행편」 강독, 산양 회보 14집 발간.
- 2010년 3월 28일 춘향제 올리고 하서 선생 도학과 절의에 대한 강연. (金東炫 율곡사상연구원 이사장)
- 2010년 7월 7일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선비정신 확산을 위한 우리의 노력 (김병일 한국국학진흥원장)
하서 선생의 上李太守書에 대하여 (金正洙) 강연, 산양 회보 15집 간행
- 2010년 12월 16일 광주 향교에서 정기총회, 선비의 시각으로 파악한 河西 선생 : 오종일(전주대 명예 교수) 강연
- 2011년 3월 23일 춘향제 올리고, 김병일 원장 「선현이 맺어준 아름다운 인연」을 주제로 강연
- 2011년 7월 6일 집성관에서 “한국 유학의 현대화를 위한 논점 세 가지”(전남대 김기현 교수 강연) 회보 17호 발간
- 2011년 9월 9일 추향제 올리고 초현관 심우영(전 총무처 장관, 전 한국국학진흥원장 장관) 강연
- 2011년 12월 20일 광주 향교에서 정기총회, 하서 김인후의 誠敬 사상 : 이애희(강원대 교수) 강연